



무등산 자락 또 하나의 미술관

무등산 나들이의 즐거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 순례도 그 중 하나다. 허백련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의재미술관을 비롯해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 미술관, 국음미술관 등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무등산 자락에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장소가 됐다.

봄 기운 가득한 5월 첫날, 무등산 자락에 또 하나의 사립미술관인 드영 미술관(De Young)이 문을 열었다. 붉은 외벽이 인상적인 미술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는 지역에서 최대 규모다. 미술관 이름은 공간을 준비하며 가졌던 목표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영원한 젊음을 꿈꾸고 싶은 마음을 담아 김도영 관장이 직접 지었다.

운영이 만만치 않은 미술관을 오픈한 이는 경북 영천 출신 김도영·김연규 부부다. 두 사람은 30년전 광주에 동지를 틀었고, 사업 때문에 경상도를 오고 갔던 남편 감씨도 10년 전 은퇴한 후 광주에 정착했다.

의상 관련 일을 했던 김 관장은 늘 '그림'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던 그녀는 아이들을 다 키운 후, 2013년 뒤늦게 호남대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젠 앞에 앉을 때면 너무 행복했던 김관장은 1년이면 340여일 학교에 나가 그림을 그렸다. 뒤늦게 시작한 만큼 '원없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보였다.

미술관을 오픈하게 된 데는 남편의 격려와 도움이 컸다. 사

실, 대규모 미술관 건립은 당초 계획에 없었다.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개인 작업실과 작은 갤러리 정도를 생각했던 그녀에게 남편은 본격적인 미술관 운영을 제안했다.

부부는 미술관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의 미술관을 둘러보고, 남해, 담양, 곡성 등을 수차례 방문했다. 오랜 고민 끝에 미술관을 향유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무등산 자락으로 장소를 정했다.

1년여 넘는 건축 기간을 거쳐 문을 연 미술관은 450여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1층은 리셉션과 전시실, 학예연구실로 구성되었으며 2층에도 전시실이 있다. 지하에는 3전시실, 교육실, 수장고를 갖췄다. 3개 전시장을 모두 합치면 전시 공간은 120평이다.

별도의 건물인 '카페 드 영'은 2층 규모다. 넓은 창으로 무등산이 보이는 카페에도 그림이 걸려있으며 소소한 아트상품도 판매중이다.

드영 미술관은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대중과 작가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기획전과 대관전을 동시에 진행할 미술관은 특히 지역의 '청년작가'들에 주목한다. 3개 전시장 중 한 곳은 청년작가들에게 무료로 대관, 작가들을 응원할 계획이다. 기획전으로는 몽골 작가들의 전시회 등이 예정돼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진행할 생각이다. 동네 어르신들과



1일 무등산 자락에 개관한 '드영 미술관' 전경과 내부 모습.

개인 운영 최대 규모 '드영 미술관' 개관
김도영 관장 1년여 준비 끝 문 열어
"전시장 무료 대관 청년작가 육성 역점"
작가 120여명 참여 6월 2일까지 기념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도 열어볼 생각이다. 또 카페 공간을 활용해 1년에 한 두차례 음악회도 열 계획이다.

'달팽이 분수'라 이름 지은 미술관 입구의 조형물은 김관장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다.

"미술관 운영이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천천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운영하려면 조금씩은 안될 것 같아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개관 기념전으로는 '무등에 '드영' 피어나다'를 준비했다. 오는 6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 디자인, 미디어, 사진, 공예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 120여명이 참여했다. 3개의 전시실에는 원로, 중년,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각각 내걸렸다.

김 관장은 "특히 우리 미술관이 젊은 작가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개관전에 참여하는 김해의 17살 소년 우시운군을 예로 들었다.

"미술관 개관 소식을 알게 된 우군 측에서 직접 전시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 작품을 보고 이번 개관전 작가로 포함시켰어요. 저희가 젊은 작가들에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작가들 역시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관식 행사 1일 오후 5시.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062-223-6515.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5월호



버스킹, 낭만문화 자리매김 광주·여수 등 거리공연 현장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모색

어쿠스틱 인디밴드 '별이삼우물장' 박재형·김범창 씨는 가끔씩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한다. 30대인 두 사람은 각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거리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한다. 광주와 여수에서는 매년 '프린지 페스티벌'과 '낭만 버스킹'이 펼쳐진다. 금남로와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노래와 공연 등 다양한 버스킹은 낭만과 흥이 넘치는 도시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일보에서 펴내는 월간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5월호는 '버스킹, 낭만 문화 자리 잡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과 여수 '낭만 버스킹' 현장을 찾아보고, 인디밴드 '별이삼우물장' 등 젊은 뮤지션들을 만나 버스킹이 진정한 거리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들었다. 또 해외 버스킹 축제와 함께 JTBC '비긴 어게인', 영화 '원스' 등 버스킹을 다룬 영화와 방송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초대석 코너에서는 최근 대하 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을 완간한 정찬주 소설가를 만났다. 작가는 기존 '영웅 이순신'을 벗어나 '인간 이순신'에 주목했다. 화순 쌍봉사 인근 집필실인 이불재(耳佛齋)에서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작가는 "남도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활용하면 호남인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를 제안한 바 있다.

5·18 기획으로 '계속 불려야 할 5·18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배경부터 왜곡·편해 과정, 그리고 앞으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중화, 세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新) 남도택리지'는 전라도 천년 역사의 뿌리인 나주를 찾았다. 영산강 황포돛배와 나주읍성 고갈상,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내 메타세쿼이아 길과 불회사 비자나무 숲 등 매력적인 나주 여행지를 둘러봤다. 대표음식인 영산포 흥어 요리와 곱탕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 공세에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영국 '프림로스 힐 북스'와 '커니한 북스'를 직접 찾아가 부부 책방지기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밖에도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오는 9월 7일에 개막하는 '2018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정명희 작가 첫 개인전

내일까지 무등갤러리, 4~31일 소풍갤러리

정명희 작가 첫번째 개인전이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2일)와 광주시 북구 삼각동 소풍갤러리(4~31일)에서 열린다.

'빛-사랑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정 씨는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녀가 잡아낸 풍경들은 '빛'과 어우러진 저녁 무렵이 많다. 어둠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찾듯,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다.

질푸는 밤바다에 비친 이국적인 건물, 밤의 골목길을 걷는 누군가의 뒷 모습,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 사이에 스며든 어둠 속의 불빛 등 다양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다.



'빛-사랑을 담다'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2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온 정 씨는 신형회전, 나래울전, 장가그롭전, 네이브회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해오다 이번에 온전히 자신의 그림만으로 전시회를 꾸렸다. 문의 010-9882-6665.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비엔날레 내일 김향 교수 GB토크

(재)광주비엔날레가 2일 오후 7시 제 문헌 1층 로비에서 김향<사진> 연세대 교수 강연의 제 7차 GB토크를 진행한다.

김향 교수는 이번 GB토크에서 '일본 전후 민주주의와 식민주의'를 주제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민주주의 체제가 식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해 자이니치(재일교포)의 고난, 박유하 교수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 '전후 민주주의와 천황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 교수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박사를 마쳤으며 저서로는 '제국 일본의 사상', '종말론 사무소' 등이 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